

Transport Valuechain Daily

2023. 3. 20 (월)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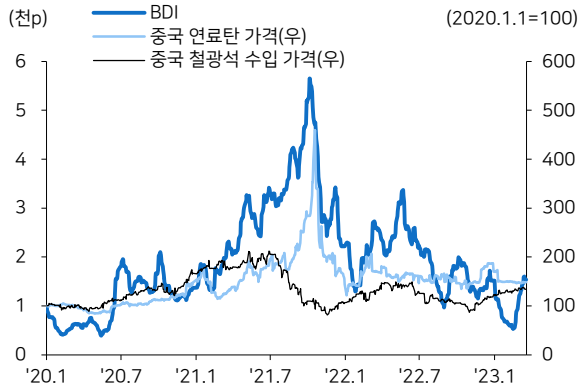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

02. 6454-4873
jungha.oh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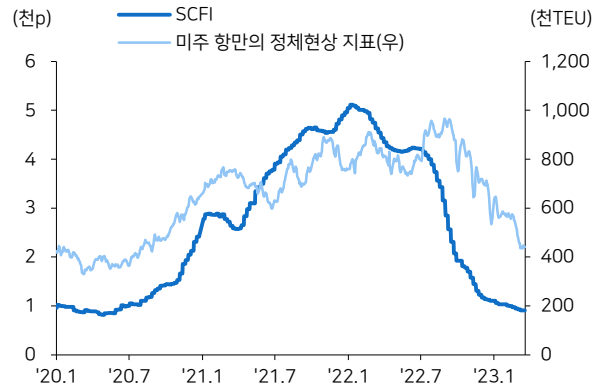


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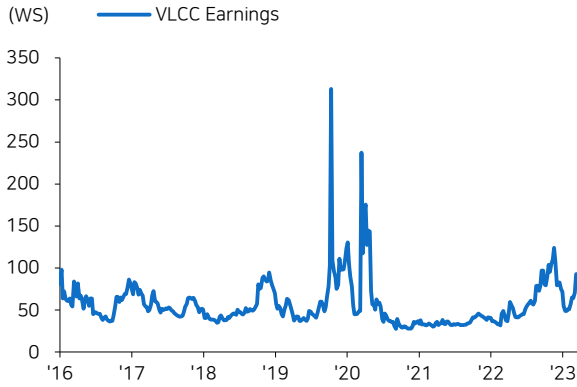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 1,535.0p(-25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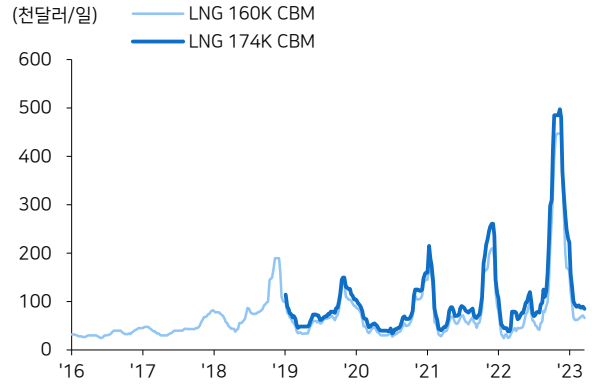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 909.7p(+3.2p W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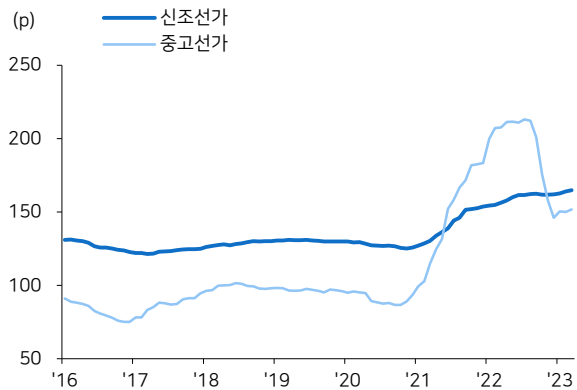
VLCC Spot Rate 92.8p(+0.0p WoW)



LNG Spot 운임 66.3천달러(-5.0천달러 WoW)
85.0천달러(-5.0천달러 WoW)

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4.7p(+0.2p WoW)
151.6p(+1.4p WoW)



중국 내수 후판가격 664.0달러(-2.0달러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일본, 한화·대우조선해양 '기업결합 승인'

일본 경쟁당국이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보도됨. 이로써 한국·중국·싱가포르·베트남·유럽연합(EU) 당국의 승인만 남았다고 언급됨. 영국과 튀르키예 당국은 사실상 승인한 상태라고 알려짐. 한국조선해양의 인수와 달리 한화의 인수로 인한 LNG선 등 특정 선박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 각국 경쟁당국은 빠른 승인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됨. (서울경제) (<https://bit.ly/400iC5l>)

삼성중공업, 덴마크 크롤크레인에 타워크레인 발주

삼성중공업이 말레이시아 크레인 회사 파벨파브코에 타워크레인을 발주했다고 보도됨. 2024년 2분기 인도될 예정임.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, 삼성중공업을 포함해 받은 주문 2건의 총액은 약 270억원으로 알려짐. 타워크레인은 고층 건물 및 선박 건조에 쓰인다고 알려짐. (더 구루) (<https://bit.ly/42ldl4W>)

사명 변경 앞둔 한국조선해양, 'HD오션' 상표권 출원

한국조선해양이 'HD한국조선해양'으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보도됨. 다만 '현대오션', 'HD오션' 등 상표권도 출원해 향후 사명 추가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언급됨. HD현대 관계자는 유사상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함. (서울경제) (<http://bit.ly/3TzqSHx>)

HMM, 선박 3척 빌려준다

HMM이 선박 3척을 빌려주는 장기 대선 계약을 7,956억원에 맺었다고 보도됨.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말부터 2041년 6월말까지 임. HMM은 선박의 종류나 거래상대방 등 관련 정보 공개를 2024년 3월까지 유보했다고 알려짐. (딜사이트) (<http://bit.ly/3yPK76b>)

Advantage Tankers firms order for up to three suezmaxes at DH Shipbuilding

대한조선이 Advantage Tanker로부터 Suezmax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. LNG DF 158,000DWT급 탱커로 척당 8,1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알려짐. 2+1 계약으로 2척은 2025년 중순 인도될 예정임. (Tradewinds) (<http://bit.ly/3YU10ah>)

Clarksons says 400 extra offshore ships will be needed in the next two years

Clarksons에 따르면, 원유 및 가스시장 수요 증가로 2025년까지 400척 가량의 추가 OSV(해양작업지원선)가 필요할 전망으로 보도됨. 선주들이 발주를 하지 않아 현존 선대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언급함. Clarksons OSV 용선료 인덱스는 전년 대비 30% 상승했다고 언급됨. 향후 몇 년간 신조 발주는 제한적이겠지만,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짐. (Tradewinds) (<http://bit.ly/3lxEXZk>)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